

## 마키에

마키에는 칠기에 바른 옷이 마르기 전에 금가루 등의 금속가루를 뿌려 문양을 그리는 일본 특유의 기법으로,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마키에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이미 8세기경부터 상류층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상업이 활발해진 18세기, 외국과의 교류가 진전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고객층이 확대되면서 마키에의 기법과 디자인도 다양화되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마키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옷이 굵은 그릇 표면에 옷으로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금속가루를 뿌리면 갓 칠한 응고되지 않은 옷에 가루가 달라붙어 문양이 완성됩니다. 또, 기법에 따라 금속가루를 뿌린 후 전체를 옷으로 덧칠하고 문양이 드러나도록 표면을 갈아내는 도기다시마키에, 옷칠을 건조시킨 후 문양 부분만 연마하는 히라마키에, 옷칠로 바탕을 만들어 문양을 도드라지게 한 뒤 금속가루를 뿌리는 다카마키에 등이 있습니다.

마키에 장인들은 다양한 기법을 만들어내며 마키에 예술의 다양성을 넓혀 왔습니다.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여러 금속과 합금을 사용해 풍부한 색채를 표현하거나 서로 다른 크기의 금속가루를 활용해 질감과 광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마키에와 함께 부순 달걀껍데기를 장식에 사용하는 ‘란카쿠’나 진주모패를 사용하는 ‘나전’ 등의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순백색이나 무지갯빛 광채를 낸 작품도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결합한 칠기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